

### 보살계 무슨 마음으로 받을까?



보살계를 받는 길  
영명연수 지음/무비 풀어씀  
연화실 퍼냄/7000원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그 복이 한량이 없다.” 보살계를 설하는 계사들이 수 계 대중들을 향해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다. 보살계를 받는 그 순간의 발심만으로도 복이 한량없다면 생활 속에서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에는 얼마나 큰 복을 쌓겠는가? 보살계는 우리나라 불자들이 승속을 따지지 않고 가장 많이 받는 대승계다. 그러나 이 보살계를 받고 설하는 근본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는 그리 많지 않다.

보살계를 설하는 필승교재인 <범광경>의 해설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송나라 영명연수 선사의 ‘수보살계법서(受菩薩戒法書)’는 보살계를 설하는 사람이나 받아 지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가를 아주 간결하게 가르치는 명문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종경록> 100권과 <만선동귀집> 등의 저서로도 이름이 났으며 ‘유심송’ ‘정혜상자’ ‘경문’ 등 정토에 관계된 글들을 많이 남겼다. 그런 영명연수 선사에게 남긴 ‘수보살계법서’는 우리나라에 전문이 번역 출간된 적이 없고 계사들이 간헐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앉아서 받고...”라는 말도 ‘수보살계법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영명연수 선사가 말하는 보살계의 근본은 중생이 바로 부처임을 깨닫고 부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만약 자신을 범부라고 집착하여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아니라 하고는 사람은 곧 입불승의 종자를 말살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옛 성인은 결코 ‘맑고 많은 번뇌와 업과 미혹들이 모두 다 보현보살의 참다운 진리의 세계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중생을 집착하여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곧 시방의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코 <화엄경>에서 ‘부처와 마음과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한 대목만으로도 보살계의 대의와 영명연수 선사의 뜻이 충분히 짐작 된다.

임연태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경이 이 세상에 없을 명신을 사행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3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생각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건	북다의 마음
6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들
7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다이어
9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미령	불교시대사
10	사할, 어느 것도 그날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길고 긴 ‘돈점 논쟁’ 한 눈에 파악



돈오선 월암 스님 지음  
클리어마인드 퍼냄/2만원

불교의 오랜 논쟁 테마인 돈점(頓漸). 단박에 닦고 단박에 깨달을 것인가, 점차 닦고 점차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깨달음을 얻는데 있어 단박이나 점차를 두고 오랜 세월 논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해답은 영영

없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물음 자체도 또 다른 논쟁의 길을 여는데 불과하다. 돈점은 장은 그 자체가 시비의 테마가 아니라 수행의 이론이고 실행방법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돈점의 연원은 멀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설에서부터 시작됐다. 남전 <상운니까야>나 북전 <아함경>에서 사성제설(四聖諦說)의 고 집 멸도의 각지(各支)를 낱말로 현관하는 점현관과 하나의 지(支)를 보면 나머지 셋의 지를 동시에 보게되는 돈현관을 주장했던 것이다.

당대(唐代)에 이르러 신화에 의해 전개된 ‘남북돈점’ 논쟁은 돈점의 수증방법과 함께 법통논쟁을 포함하기도 했다. ‘남북돈점’은 신수와 혜능의 가품을 돈점의 측면에서 나눔으로 역대 조사의 법통이 어느 곳으로 이어졌느냐는 논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794년 티베트 삼에대승원에서 중국 선종의 마하연 스님과 인도의 까마실라 스님 사이에 벌어진 돈점논쟁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보조 지눌 스님에 의해 돈점 수증론이 제기되었다. 돈오

점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보조지눌의 돈점론은 반론을 받지 않으며 긴 세월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를 통해 돈오점수를 비판하고 돈오돈수가 선문의 전통 수증론이라고 주장 함으로써 새로운 돈점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물론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돈점문제를 세상에 보여주고 긴 ‘화두’를 드러낸 성과는 적지 않다.

돈점 논쟁은 자칫 언어의 유희로 흐르기 쉽다. 수행과 깨달음은 철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데 언어로 전개되는 논쟁은 논점을 흐릴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 실천의 담보 없이 돈점논쟁을 ‘즐거움’ 무리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염려는 승속이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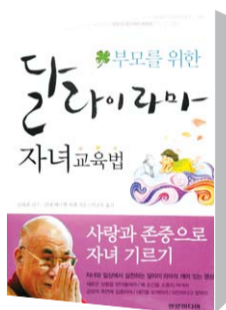
월암 스님(사진)은 <돈오선>을 통해 돈점 논쟁의 연원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정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전체 수증론의 유기성과 회통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돈점 논쟁의 물밑에는 돈오선이라는 거대한 사상적 모토가 자리하고 있다.



돈오선의 근원적 가치를 인식할 때 돈점 논쟁의 뿌리와 결구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자녀 다루는 ‘비법’은 없다



부모를 위한 달라이라마 자녀교육법  
슈테판 리스·안네 베르벨 퀴레 지음  
박규호 옮김/현문미디어 퍼냄/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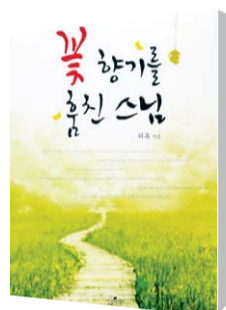
아이의 부모의 거울이다. 또한 아이의 눈에 부모는 마치 절대자와 같다. 반면 아이는 부모에게 미지의 세계를 선물한다. 아이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의 첫 시작은 부모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달라이라마가 제안하는 가장

교육법이 요즘 시대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사성제’의 네 가지 근본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전반적인 삶의 관리와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한다. 기존 육아 교육서와의 차별 점은 여유로운 마음을 준 비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아이를 다루는 비법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달라이라마의 생각이다.

부모가 된 이상 아이를 잘 보살필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동시에 부모는 변화하는 아이들의 인성을 통해 함께 하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보편적인 가정교육 원리의 지침을 실행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 안에 숨은 우주와 조우하게 될 것이다.

기연숙 기자

### 삶의 지혜 하나로 엮어



꽃향기를 흠친 스님  
퇴휴 지음/사유사 퍼냄  
1만원

흔들림 없이 걸어온 출가의 길 40년. 퇴휴스님이 법장사의 월간 사보(寺報) <영신회상>에 연재된 지상설법을 묶었다. 퇴휴스님이 직접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나온 정법(正法) 정도(正道)의 현장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전의 말씀과 일상의 사건을 연관 지어보면서 편안하게 읽고 공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꽃향기를 흠친 스님’은 사람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가 차별 있음을 비유로써 풀어 보인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는 적에 한 수행승이 눈에 걸렸다. 치료를 위해 연꽃의 향기를 맡고 계셨다. 그때 주지 않은 것을 취함에 대한 천신의 꾀반이 이어졌다. 어질고 슬기로운 사람은 작은 허물에도 세간의 이목을 끈다는 비유이다.’ <잡아함>50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비록 일관성 없는 세상의 평가이지만 지도자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은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불자가 지나야 할 신행 생활의 이모저모는 물론 올바른 불자로서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가 하는가 궁극했던 독자라면 한 번쯤 읽어 봐야 할 책이다.

기연숙 기자

### 월간 ‘불광’ 2008우수전문잡지 선정

월간 <불광>이 ‘2008 우수전문잡지’에 선정됐다.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는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선정한 우수잡지 중 42종을 우수전문잡지로 선정했다. 심사에는 이광재 명예교수(경희대), 성도경 심의위원(간행물윤리위원회), 박상근 연구위원(신문발전위원회), 주은수 소장(미디어경영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월간 <불광>은 1974년 11월, 광덕 스님이 창간해 쉬운 교리와 유익한 정보 등으로 불자들의 지적 욕구와 소통을 충족시키며 불교잡지의 전형을 폈다. 1994년 ‘제3회 문공부 선정 우수잡지’ 선정, 199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별상’ ‘2005년 조계종 포교사단 감사패’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불교잡지 중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월간 <불광>은 정기구독자 외에 전국의 교도소, 군부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발행부수의 20% 이상을 꾸준히 보내며 소외된 이웃들과도 함께 해왔다. ‘2008 우수전문잡지’에 선정된 월간 <불광>은 2008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 군부대 봉사관 등 44개 처에 확대 보급된다.

조동성 기자

###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범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심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영원한 현실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 일됨에 국화꽃 곁과 복산에 짓는 희다  
 바로보인 선문염속 전30권 중 11권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속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속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민당 석운

###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종 안 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셨던 중국 송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송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송산소림사 석영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송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분할 용화사, 부산 해동중공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발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어 주십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시길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도계수 수여(입종비:15만원)  
 ◇ 입종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 입종구비서류: 주민등록본 2통, 승려증사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주 3회 2시간 청곡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예: 주 3회 2시간 석전 김기섭선생
- 소림무술: 소림무술스님: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송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판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야후) 연합불교방송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까.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십시오.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휴대폰: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